

밭길 닿는 곳마다 신나는 문화난장

5월 연휴 온 가족 즐기는 문화행사 다채

금남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창작 판타지 거리극 공연
문화전당 '아시아 컬처마켓'

대인야시장 광주정신 인형극
국립나주박물관 놀이극 '오즈를...'
영산강문화관 뮤지컬·마술쇼

▶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시민 누구나 친구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발전소'의 '친구인간' 퍼포먼스.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5월,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 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창작 판타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신문지를 오브제로 신문지가 얼마나 많은 판타지 속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리극 '신문지 이야기'와 마술과 마임, 컨택트 저글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 신우주가 선보이는 매직 퍼포먼스 '헬로 포터'가 진행된다.

또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라틴 댄서들이 즉흥적으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히어로 댄스쿨'의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은 지나가는 행인과 횡단보도에 앞에 멈춰 선 운전자들을 일순간 관객으로 끌어들이는 특별한 광경을 연출한다.

이 밖에도 매직 난버벌 퍼포먼스·마임·거리 무용극·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금남로 일대 거리 곳곳에서 열린다. 문의 062-223-0410.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에 마련한 대인예술야시장이 '오색찬란'을 주제로 5월 야시장의 불을 밝힌다.

제1주차장에 마련된 유별난 예술극장에서는 '오색가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관객력을 맞는다. 5일 오후 7시30분부터 미루나무인형극단이 어린이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5월 광주정신을 인형극으로 선보인다.

이와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가 공연이 이어지며 마술사 조성욱이 마술과 저글링이 합쳐진 퍼포먼스를 무대에 올린다.

12일에는 가족밴드 '예담'이 인권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청년밴드 '독수리 오형제'와 혼성 어쿠스틱 밴드 '트리플 제이' 등이 경쾌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선보인다.

한평갤러리에서는 김화순, 김희남, 박성완, 위재환, 최재덕 작가 등이 참여하는 '산 자여, 따르라'전이 12일 까지 열리며 아트컬렉션샵 수작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캔버스 프린트 작품을 전시·판매한다. 또 주제를 선정해 아트체험을 진행한다. 문의 062-233-14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6월30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ACC 하늘마당과 플라자브릿지(구 무라리)에서 'ACC 아시아 컬처마켓'을 오픈한다.

이번에 열리는 마켓은 총 5개 존으로, 청년들의 특색 있는 창업아이템을 엿볼 수 있는 스타트업존(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아시아 생활소품과 아기자기한 생활소품들이 판매되는 마켓존,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자전거 식당', '피아노 버스킹' 등 독특한 거리퍼포먼스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공연존, 인도 탄두리 치킨과 태국 팻타이, 중국 마라탕 등 아시아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존(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도 5일 '2018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을 개최한다.

베에로의 풍선아트 체험,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와 먹거리 이벤트가 진행되며 애니메이션 드림 송(오후 1시)과 프랑켄 워너비(오후 5시)를 상영하고, 교육관 앞마당에서는 스토리텔링 마술&마임&저글링&버블공연이 점목된 제로 플린쇼(오후 4시)를 상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570-7016.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에서도 어린이의 공간을 모토로 하는 JK 엔터테인먼트사가 오는 6일 오후 3시와 5시 놀이극 '오즈를 찾아서'를 준비했다.

'오즈를 찾아서'는 주인공인 아빠가 초등학생 딸의 학교에서 공기 대포, 공놀이 등을 통해 연극놀이를 수업으로 진행한다. 문의 061-330-7804.

K-water 영산강보관리단과 영산강문화관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5일 영산스토리(yeongsan story)팀의 뮤지컬 갈라쇼가 열리며, 6일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별문&마술쇼와 대중문화 공연이 펼쳐지며 친환경조형교실(페트병모빌)과 주말체험교실(천연염색), '어린이 끼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날 당일에는 홀아들복지회 보유물품 1000여 점과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100여 점의 물품들을 판매하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문의 061-335-086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전당 음악분수 '나비정원' 조성

음악 11곡 설문조사 선곡... 휴관일 제외 가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에 음악분수가 조성됐다.

9일 가동을 시작한 음악분수 '나비정원'은 '빛의 숲'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모티브로 해 ACC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꿈과 희망을 싣고 날아가기를 기원하는 조형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아시아문화광장 내 연못 2곳에 조성된 분수는 오는 11월 첫 주까지 휴관일을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오전 11시, 오후 2시·5시·8시)되며 낮에는 시원한 청량감을,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과 음악을 선사한다.

음악은 시민들과 임직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모두 11곡을 선곡했다.

스티븐 바리캣의 'Flying'과 Whistler's Song, 영화 '택시운전사' OST '화창한 오월의 어느 날', '뽀롱 뽀롱 뽀로로' 오프닝,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 비틀즈의 '사계' 중 '봄 리믹스' 등이다. 음악과 함께 점령, 사프, 핑거분수 등 3종의 분수가 다양한 형태로 연출된다.

한편 ACC는 최근 2018년 책임운영 기관 A평가를 받았으며 고객 지원 운영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음악분수도 고객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아시아문화광장과 나들광장에 안개분수(5월 중순 운영예정)와 그늘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극장 5월 가족·사랑 영화 잇단 개봉

광주극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준비했다.

3일 개봉한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은 10년 만에 고향에 모인 '장', '줄리엣', '제레미'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겨진 부르고뉴와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이너리에서 처음으로 다



함께 최상의 와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포도가 무르익어가는 부르고뉴의 사계절 풍경과 프랑스 최상급 와인을 제작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담겨 있어 최근 극장가에 불고 있는 자연, 힐링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날 개봉한 '렛 더 선사인 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감독 클레어 드니와 세계적 거장들의 뮤즈 줄리엣 비노쉬의 만남으로 국내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된 영화다.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에서 착안한 영화로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브라이언 셀즈닉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토드 헤인즈 감독의 신작 '윈더스 트러'는 4일 만날 수 있다. 1977년을 살아가는 소년과 1927년을 살아가는 소녀가 집을 떠나 홀로 뉴욕으로 향하는 여정을 하나로 엮어내고 있다. 50년의 시차를 흑백과 무성, 컬러와 유성으로 구현한 대조적인 미장센을 통해 매혹적인 신비감을 담았다.

10일 개봉하는 '보리vs매켄로'는 1980년, 세계 최초로 월드컵 5연패에 도전하는 '비외르 보리'와 그를 꺾을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존 매켄로'의 테니스 역사상 최고의 빅매치로 손꼽히는 박빙의 승부를 다룬 스포츠 드라마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 ej6621@



'사랑노래-사계'

서양화가 이을배 개인전 9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서양화가 이을배 개인전이 오는 9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사랑 연작' 시리즈를 선보인다.

꽃과 나무, 물고기, 새 등을 화폭 가득 담은 작가는 봄여름가을겨울 각 계절마다 어울리는 자연 소재들을 가깝고 산뜻한 터치로 묘사해 상큼함을 전해준다.

봄에는 노란 나비와 화사한 꽃들이 어우러지고, 여름엔 푸른 빛 연못 속 물고기들이 한가로이 노닌다. 가을에

는 보랏빛 꽃들이 화면을 채우고 겨울에는 하얀 눈을 배경으로 바랜 이파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상상과 꿈 속을 거니는 평화로운 풍경들이 떠오르는 작품들은 위안을 준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지금까지 LA, 싱가포르, 서울, 부산 등에서 40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전남청년작가상, 전남미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선과색회원 등으로 활동했다. 문의 010-8607-35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대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아·내를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